

AUTHOR 정정숙 (Chung Sook Chung)

TITLE 칼빈의 교육사상 연구 (1)

(A Study on the Thought for Education of  
Calvin (1))

IN 신학지남(Presbyterian Theological Quarterly)

vol.50 no.2 (Summer, 1983):180-195

을 명확히 하는데 있는 것이다.<sup>76)</sup>

교회는 개인주의나 자기 기반에 의해서 파멸된 인생들 틈에서 사회의 새로운 사상을 창조해야 할 커다란 교육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 더욱 좋은 기독교인의 경제질서는 정의로서 나타내는(모든 사람을 위한 책임의 개념인) 사랑의 개념위에 세워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사명을 이룩하는 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다.<sup>77)</sup>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기능과 기술을 활용하여 나름대로 주어진 환경속에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첫째 전도의 구역을 빈곤한 지역으로 돌려 그들과 간격을 좁혀야 하며, 둘째 교회 시설을 빈곤한 사람들을 위한 시설로 그 성격을 바꿔야 하며, 셋째 영구적인 구제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것이다. 아울러 점소한 생활 형태를 개발해서 크리스찬으로서의 경제정의 구현에 앞장서야 하겠다. 바른 사유 재산 제도의 확립과 보존, 정당한 이익의 추구, 정당한 가격 실시, 정당한 임금 제도, 경제력의 정당한 분배 등을 이루어야 하며 개인이나 노동자를 착취하거나 인권을 유린하는 경제악에 대하여 과감히 도전하며 바른 경제의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다. (\*)

76) *Ibid.*, p. 332.

77) G.F. Thomas, *op. cit.*, p. 333.

## 칼빈의 敎育思想 研究 (I)

鄭 正 淑  
<조교수·기독교 교육학>

<目 次>	
序 論	2. 칼빈의 生涯와 活動
I. 칼빈의 生涯와 時代의 特性	① 成長時期
1. 칼빈時代의 特性	② 칼빈의 歸心
① 人文主義와의  만남	③ 기독교 강요의 집권
② 宗教改革의 擴散	④ 제네바의 改革運動
③ 스위스의 改革運動	

### 序 論

개혁자들의 발자취는 개혁자마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역사 세계(歷史世界)에 끼친 공헌은 지대하다. 개혁자들의 사상과 활동을 연구함에 있어서 개별적인 연구와 아울러 상호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sup>1)</sup>

한 사람의 사상을 어떠한 시각(視點)에서 관찰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사상에 대한 조명은 연구자의 기본 자세와 직결된다. 특히 칼빈의 사상에 대한 연구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특

1) 개혁자들의 교육사상을 탐구하는 필자의, 인연의 논문들은, 무더의 *개혁思想研究*, 神學指南, 189號, 1980년 가을·겨울호와 '윌립 엘랑본의 *개혁思想研究*', 神學指南, 193, 194號, 1982년 봄호와 여름호, '존 낙스의 *개혁思想研究*', 神學指南, 196號, 1982년 겨울호 그리고 '프링글리의 *개혁思想研究*', 神學指南, 197號, 1983년 봄호 등이 있다.

성의 부각이 달라질 수 있다.

칼빈은 위대한 종교개혁자이면서 세계정신사(世界精神史)에 새로운 영역을 확장시킨 사람이다. 우리는 칼빈에 대하여 흔히 종교개혁자나 신학자로만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칼빈의 사상은 심오하고 그의 활동과 그가 세계 정신문화에 끼친 영향이 실로 지대하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sup>2)</sup>

칼빈은 종교개혁자요, 주석가요, 설교자인 동시에 교육자로서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다. 그의 발자취에 대한 연구는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칼빈연구는 매우 피상적이고 단편적인 연구에 지나지 않고 있다.<sup>3)</sup>

특히 교육자로서의 칼빈에 대한 연구는 극히 저조하다.<sup>4)</sup> 칼빈의 교육사상에 대한 집중적 연구는 기독교 교육사 뿐만 아니라 신학사상사(神學思想史) 연구에서도 귀한 분야가 될 것이다.

칼빈의 교육사상을 연구하기 위하여 칼빈이 활동하였던 시대와 그의 생애를 고찰하므로 시대적 바탕에서 생성한 그의 교육사상의 특성과 교육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기독교 교육사상사(基督教教育思想史)의 한 단면을 조명하려고 한다.<sup>5)</sup>

## I. 칼빈의 生涯와 時代의 特性

종교개혁의 위대한 봉우리의인 칼빈은 종교개혁의 열의가 확산되고,

- 2) 칼빈의 정신사적 공헌에 대한 연구서들은 수없이 많다. 그중에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개교 50주년 기념 논문집으로 발간된 W. Stanford Reidced., *John Calvin, His Influence in the Western World* (Grand Rapids: Zondervan, 1982)는 매우 유익한 자료이다.
- 3) 한국에서의 칼빈·칼빈주의 연구는 집중적 연구가 되지 못하고 있다. 연구 논문들의 목록은 朴鍾浩(編), *韓國神學關係論文索引集*(서울: 總神大學 出版部, 1978)를 참조하라.
- 4) 석사학위 이상의 논문에서 칼빈의 교육 사상에 대해 연구한 것은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의 졸업논문 *빛전과 장전대(長禱大)* 졸업논문 가운데 한 두편, 중앙대학 대학원 논문가운데 몇편 뿐인 실정이다.
- 5) 필자가 시도하는 탐구 방법은 필자의 다른 논문들과 같은 형태를 취하려고 한다. 즉 시대와 생애의 특성, 교육사상, 교육활동 등의 순서로 고찰하려고 한다.

더하여 가는 시대에 활동하였다. 칼빈의 시대와 생애는 역사의 한 분수령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우리에게 깊은 연구의 영역을 제공하고 있다.

### 1. 칼빈時代의 特性

칼빈이 활동하던 시대는 개혁운동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의 새로운 형태로 정착되어가는 시대였다. 그러나 개혁운동이 각지에서 꽃피우기 위해서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뒤따랐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 ① 人文主義와의 만남

칼빈 시대의 사상적 주류(思想的主流)를 이룬 것은 인문주의(人文主義·Humanism)이다.

인문주의가 개혁자들에게 끼친 영향은 매우 크다.<sup>6)</sup> 개혁자들은 인문주의와의 만남을 통하여 고전(古典)이 가지는 심오한 사상을 발견하고 인간의 가치와 존엄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되었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은 서양 역사의 가장 큰 변화의 운동인데, 이 두운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규명하려는 학자들이 많다.<sup>7)</sup> 이 두 운동은 상호 관련 속에서 서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영향을 받은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당시 사회에서의 인문주의는 교회안에서의 개혁운동과 함께 그 시대의 사상적 특성(思想的特性)을 보여주고 있다.<sup>8)</sup> 어떠한 양상은 중세에서 다른 시대로 변화되어 가는 시대상(時代相)의 단면이기도 하다.

인문주의는 일반적으로 기독교 인문주의(基督教人文主義)와 이교적 인문주의(異教的人文主義)로 구분한다. 기독교 인문주의는 고전(古典)에 대한 관심과 평가가 중요한 출발점이 되지만 교부(敎父)들의 노력

6) 개혁자들의 인문주의와의 만남에 대해서는 鄭正淑, 필립 멜랑톤의 敎育思想研究 (I), *op. cit.*, p. 149와 프빙글리의 敎育思想研究, *op. cit.*, p. 182를 참조하라.

7)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관계에 대한 탐구는 洪致模, 宗教改革史(서울: 聖光文化社, 1977)을 참조하라.

8) 鄭正淑, 프빙글리의 敎育思想研究, *op. cit.*, p. 182.

한 것처럼 기독교 진리와 철학(哲學)을 조화시키려고 한다.

이교적 인문주의는 고전문학(古典文學)과 사상에서 발견된 고대 이교주의(古代異敎主義)의 정신을 이袭하고, 여기서 인간의 완전한 표현을 정립하려고 하였는데 이들은 인간을 선(善)한 존재로 보았다.<sup>9)</sup>

기독교 인문주의는 이태리의 유명한 교육가인 비트리노 다 펠트르(Vittorino Da Feltre)에 의하여 절정을 이루었고, 에라스무스(Erasmus)가 대표적 존재로서 여러 개혁자들에게 영향을 끼쳤다.<sup>10)</sup>

칼빈은 인문주의의 영향을 받았으며 프랑스의 인문주의자들과 깊은 교류를 가졌고, 그의 작품에서 사상의 편린을 엿볼 수가 있으며, 나중에 인문주의를 극복하고 성경의 원리에 입각한 사상을 정립하였다.<sup>11)</sup>

칼빈이 인문주의와의 만남의 기회를 가진 것은 그가 법률학을 공부하기 위하여 오르레앙(Orléans) 대학에 입학한 후부터이다.<sup>12)</sup> 칼빈은 이 대학에서 당시 최고의 법률학자인 페트와르(Pierre de L'Etoile) 밑에서 공부하였다. 그러나 그에게 가장 큰 사상적 영향을 끼친 사람은 볼마르(Wolmar) 교수였다.

칼빈이 볼마르 교수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에 대하여는 칼빈의 전기 쓴 그의 제자 테오도르 베자(Theodor Beza)의 기록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sup>13)</sup>

「나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즐겁다. 볼마르는 나의……소년 시대에 이르기까지 가르쳐 주신……유일한 스승이다. 그의 재능, 학식, 덕이 너무나 높고, 위대하기 때문에 평가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칼빈은 그의 지도와 도움으로 헬라어를 배웠다. 후일에 그는 볼마르 선생에게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여, 고린도전서 주석을 쓴사에게 증명하므로써 스승에 대한 감사를 표시했다.」

9) 鄭正憲, 필립 벨랑톤의 敎育思想研究, *op. cit.*, p. 149.

10) *Ibid.*

11) 칼빈과 인문주의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논문 목록으로 洪致敏, *op. cit.*, pp. 131-2의 註에 소개된 자료들이 우리에게 좋은 안내가 된다.

12) 오르레앙 대학에서는 Erasmus가 라틴어를, Reuclin이 히브리어를, Aleander와 Wolmar가 헬라어를 가르치고 있었다.

13) Theodore Beza, *The Life of John Calvin*, tr. by H. Beveridge (Edinburgh, 1834), p. 23.

칼빈은 오르레앙대학을 마친 후에 당시 인문주의자들의 새로운 중심지인 보르제 대학교(University of Bourges)<sup>14)</sup>에 직을 두었다.<sup>15)</sup> 이 대학교에서 칼빈은 법학을 공부하였다.

칼빈은 인문주의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인문주의자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인생과 학문의 시야(視野)를 넓혔고, 그의 저서에서 고전들을 풍부하게 인용할 수 있었다.

칼빈이 인문주의자로서 두각을 나타내게 된 것은 1532년에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Commentary on the De Clementia of Seneca)<sup>16)</sup>을 집필하고서이다. 여기서 그는 고전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내보였고, 그의 탁월한 지식을 표현하였다.

칼빈이 인문주의에서 받은 영향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은 문학형식(文藝形式)으로서의 그의 글이 가지는 가치이다. 칼빈의 불어 산문(佛語散文·French prose)은 많은 작가들이 흠모할 정도였다. 그의 산문은 간결하고 단순한 구어체(口語體) 문장으로서 일반시인들이 신학사상을 보다 용이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sup>17)</sup>

칼빈의 인문주의와의 만남은 그의 사상을 학습화하고 문장으로 서술하는 데 귀한 계기를 마련하여 준 것이 사실이다.

#### 宗敎改革的의 擴散

칼빈 시대의 최고의 특성은 종교개혁이다. 칼빈이 활동하기 시작할 즈음에는 독일에서 개혁운동이 전개된지 10년이 지났고 루터를 중심으로 한 신교 세력(新敎勢力)이 형성될 정도였다.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들인 존 윌렘(John Wycliffe)과 존 후스(John Huss) 등은 자국어(自國語)로 성경을 번역하여 일반 시민들

14) 이 대학교는 Berry 지방의 왕비인 마그리트 나바르(Marguerite de Navarre)가 인문주의자들을 후원하는데 힘입어 많은 학자들을 초빙하였다.

15) J. MacKinnon, *Calvin and the Reformation* (London: 1936), p. 14.

16) 이것은 칼빈의 첫 작품으로서, 작품에 대한 평가보다도 고전에 대한 지식을 나타내 보인 것이 중요하다.

17) 일반적으로 루터가 독일어학(獨逸語學)에 끼친 영향에 대하여서 많이 평가하고 있으나 칼빈의 불어산문(佛語散文)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가치는 저평가 받아야 할 일이라고 본다.

로 하여금 성경의 진리에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18)</sup> 이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지배 아래에서, 성경의 가르침으로 신앙의 방향을 재정립(再定立)한 것으로서 성경적 삶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들의 기초위에 루터의 개혁운동이 발화점(發火點) 구실을 하였다.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Wittenberg) 성당 게시판에 95개조 논제(論題)를 게시한 행동으로 성경의 새로운 발견과 해석이 시도되었고, 기독교 교리(基督教敎理) 정립의 기회가 되었다.<sup>19)</sup>

루터를 기점(起點)으로 하여 유럽 각국에서 개혁의 새물결이 일어났고, 이것은 역사의 방향을 새롭게 하였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여러가지 의미로 규정할 수 있다. 한국의 루터 신학자 지원용(池元溶)은 루터의 개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sup>20)</sup> 첫째, 종교의 부흥(Revival of Religion)이다. 이름뿐이요, 생명이 없는 종교를 새로운 종교로 부흥하려는 운동이다. 둘째, 영적 만족을 갈망하는 인간의 영적 고민과의 투쟁(struggle of faith)이다. 셋째, 순수한 기독교를 재발견(再發見)하려는 운동이다. 넷째, 신학운동(神學運動)이다.

루터의 개혁운동은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에 중점을 두려는 노력에 대해서 소수의 무리들이 나타나 하나님과 말씀을 토대로 하여 진리중심(眞理中心)의 생활을 하려는 운동이며, 이것이 바른 신앙운동으로 확산되었다.<sup>21)</sup>

루터를 선수로 하여 멜랑톤(Philip Melancthon)<sup>22)</sup>과 츠빙글리(Zwingli)<sup>23)</sup> 그리고 낙스(John Knox)<sup>24)</sup> 등이 칼빈과 동시대(同時代)

18) 鄭正淑, 츠빙글리의 教育思想研究, *op. cit.*, pp. 181-2.

19) F.V.N. Painter, *Luther on Education* (St. Louis: Concordia Reprint, 1965), p. 94.

20) 池元溶, 루터의 宗教改革, 聖學叢編(서울: 진리미디어社, 1959), pp. 43-49.

21) C.B. Favey, *History of Christian Education* (Chicago: Moody Press, 1954), p. 143.

22) Cf. 鄭正淑, 칼빈 및 멜랑톤의 教育思想研究, *op. cit.*

23) Cf. 鄭正淑, 츠빙글리의 教育思想研究, *op. cit.*

24) Cf. 鄭正淑, 존 낙스의 敎育思想, *op. cit.*

의 개혁자들로서 활동하였다.

종교개혁은 문화사(文化史)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sup>25)</sup> 로마 카톨릭 교회가 지금까지 가르쳐온 구원에 대한 집단적 책임(集體的責任)을 “신앙의인”(信仰義認·justification by faith)의 가르침을 통하여 개인적 책임으로 대체시켰다.<sup>26)</sup>

종교개혁은 이러한 대체 작업(代替作業)의 출발점이지만 결코 종점(終點)은 아니었다. 유럽 전역에 번져간 종교개혁의 불길은 바른 신앙 자세의 구현을 위한 계기가 되었다.

프빙글리를 중심으로 한 스위스의 개혁운동이나 존 낙스를 중심으로 한 스코틀랜드의 개혁운동은 성경 진리의 생활화(生活化)라는 점에서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나며 교육면에서는 교육 개혁운동(敎育改革運動)이라고도 할 수 있다.<sup>27)</sup>

### ③ 스위스의 改革運動

스위스의 개혁운동은 스위스의 언어권(言語圈)에 따라 그 양상을 달리하고 있다. 스위스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를 사용하는 지역으로 나누어지며, 그 지역에 따라서 종교의 특성도 달라지고 있다.

독일어를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프빙글리를 중심으로 개혁운동이 전개되었고,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칼빈을 중심으로 개혁운동이 전개되었다.

스위스는 13개주(cantons)로 구성된 연방(聯邦)으로서 자치공화국(自治共和國)이었다. 16세기 초의 스위스는 가장 자유스러운 나라로서 독립국가의 명맥을 유지하는 독특한 형태로 발전되어 갔다.<sup>28)</sup>

스위스의 종교개혁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측면으로 고찰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이 크게 세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sup>29)</sup>

첫째, 인문주의(人文主義)의 영향이다. 유럽의 사상적 흐름을 바꾸

25) 池元溶, 루터의 神學·神學과 敎育(서울: 진리미디어社, 1961), p. 57.

26) *Ibid.*

27) Pierre J. Marique, *History of Christian Education II*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1926), p. 107.

28) Willistou Walker,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Enlarged edition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p. 336.

29) *Ibid.*

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인문주의는 스위스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16세기초의 바젤(Basel)은 인문주의의 본산지였고, 유럽 각지에서 학생들이 몰려와서 자유로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지방자치(地方自治)의 영향이다. 스위스는 전제군주국가(專制君主國家)가 아니라 각 주(各州)가 자치하는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일찍부터 자유에 대한 열의가 있었다.<sup>30)</sup>

이러한 정치적 경향은 스위스 사람들로 하여금 강제나 억압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게 하였고, 억압에 대한 항거를 행동화(行動化)하게 하였다. 자유에 대한 훈련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힘을 바치는 방안을 강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지방 자치를 통한 자유로운 정치참여는 개혁운동에 대한 공감(共感)과 이해(理解)의 분위기를 조성케 하는데 중요한 바탕을 이루었다.<sup>31)</sup>

세째, 교회의 제재에 대한 항거와 대지주(大地主)인 수도원들의 가혹한 세금에 대한 반항이었다. 교회의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면죄부(免罪符)를 판매하였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백성들을 착취하였다. 비록 지방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해도 대지주인 수도원들이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의 생활은 매우 어려웠다.

이러한 여건들이 스위스의 개혁운동을 발화(發火) 시키고 촉진시키는 요인들이 되었고, 개혁운동의 여건들이 성숙해져 있으므로 지도자들의 활동이 용이하였다.<sup>32)</sup>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스위스 지역은 칼빈이라는 지도자가 나타나므로 더욱 활기있게 전개되었고<sup>33)</sup> 보다 새롭고 넓은 영역에서 개혁의 불꽃이 타오르게 되었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개혁운동에 동참한 1536년은 유럽 역사의 일대

30) James Atkinson, *The Great Light, The Paternoster Church History*, Vol. IV. (Devon: The Paternoster Press, 1968), pp. 133f.

31) *Ibid.*

32) 鄭正淑, *프빙글리의 教育思想研究*, *op. cit.*, p. 185.

33)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지역의 개혁운동은 제네바를 중심으로 하여 일어났다. 칼빈이 오기전에 이리 파렐(Farel)이 그곳에서 개혁운동을 전개하고 있었고, 칼빈의 칼류로 더욱 격화되었다.

전환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sup>34)</sup> 당시의 제네바는 인구 13,000명 정도가 되는 도시였고, 스위스연방에 가입하지 않는 도시공화국(都市共和國·City Republic)이었다.<sup>35)</sup>

제네바에서의 개혁운동이 전개되기 10년전에 취리히(Zürich)를 중심으로 하여 쾰빙글리가 개혁운동을 전개하고 있었고, 이 영향을 제네바가 받게 되었다.

그러나 스위스의 개혁운동은 쾰빙글리를 중심으로 한 독일어 사용지역과 칼빈을 중심으로 한 프랑스어 사용지역의 개혁운동으로 대분(大分)할 수 있다.

## 2. 칼빈의 生涯와 活動

칼빈의 생애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으나 그의 개인적 역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힌 것은 많지 않다. 그 이유를 여러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겠으나 그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원리> 속에서 이루어졌기에 자신을 숨기고 하나님만 나타내려는 의지(意志)의 발로이며<sup>36)</sup> 다른 하나는 그의 성격이 소심(小心)하고 귀족적 성향(性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sup>37)</sup>

그의 생애와 활동의 주요 부분을 다음의 몇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고찰하려고 한다.

### ① 成長 時節

칼빈<sup>38)</sup>은 1509년 7월 10일 프랑스 동북방 58마일에 있는 피카르디

34) 1538년에는 칼빈이 제네바에서 개혁운동에 참여하였고, 인문주의의 왕자(王子)라고 불리우는 에라스무스(Erasmus)가 바젤(Basel)에서 죽었고, 프랑스 인문주의 운동의 선구자인 루에브르(Lefevre d'Étaples)가 벨락(Nelac)에서 죽은 해이다.

35) John T. McNeill, *The History and Character of Calvinism*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4), p. 133.

36) 김 남식, *칼빈주의 연구*(서울: 백합출판사, 1972), pp. 99f.

37) 孫炳鎬, *長老敎會史*(서울: 大韓敎會長老會總會敎務部, 1980), p. 145.

38) 칼빈의 이름은 잔 코반(Jean Cauvin)이었다. 이 이름을 라틴화하여 조한네스 칼빈누스(Johannes Calvinus)라고 하였고 다시 칼빈(Calvin)이라 하였다.

(Picardy) 지방의 노용(Noyon)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제라드 코반(Gerard Cauvin)과 어머니 요한나(Johanna) 사이의 넷째 아들이었다.<sup>39)</sup>

아버지는 머리가 명석하고 문필에 소질이 있었으며 사물(事物)에 대한 이해력이 강하였고, 근면과 노력을 생활철학(生活哲學)으로 삼았다.<sup>40)</sup>

어머니 요한나는 정숙하고 겸손하며, 중세기적 경건을 가진 사람이었다. 제라드와 요한나의 성격은 대조적이었다. 제라드는 양심적이었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여 보겠다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인데 비하여, 요한나는 신앙에 쌓여 경건생활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려고 하였다.<sup>41)</sup>

칼빈은 어머니의 경건한 신앙 분위기 속에서 성장(成長)하였으며<sup>42)</sup> 12세 때에는 노용 성당에서 한 교직(敎職)을 맡기도 하였다.

칼빈의 아버지는 박봉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계속하여 공부시켰다. 아들이 성직(聖職)을 얻도록 신학연구의 열정을 줄 정도였다.<sup>43)</sup> 또 성직자로서의 삶을 위하여 주위 사람들과 남다른 친분을 가지도록 하였다.<sup>44)</sup> 그러나 1527년 그의 아버지가 성당 참사회와 다툼 후 그를 법률가로 만들려고 하였다.<sup>45)</sup>

칼빈은 여러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14세 밖에 빠리에 있는 마르세(Marche) 대학에 등록하였고, 그후 몽태그(Montaigu) 대학으로 옮겼다.<sup>46)</sup> 이러한 과정에서 칼빈과 인문주의(人文主義)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39) 칼빈의 형제는 모두 다섯명이었다. 위의 두 형은 어릴 때 죽었고 남은 형 찰(Charles)은 어려서부터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고, 나중에는 로마교회의 과학을 당면했으며 1537년에 죽었다. 동생 안트와노(Antoine)는 나중에 제네바에서 형을 도와 개혁운동을 하였다.

40) 김남식, *op. cit.*, p. 100.

41) *Ibid.*, p. 101.

42) 칼빈의 어머니는 동생 안트와노를 낳은지 얼마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칼빈의 나이는 세살이었다.

43) Francois Wendel, *Calvin* (London: Harper, 1974), p. 15.

44) McNeill, *op. cit.*, p. 94.

45) Walker, *op. cit.*, p. 348.

46) 그가 대학을 옮긴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없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그의 학문적 성숙이 이루어졌다.

칼빈은 몽태그 대학에서 라틴어를 배웠으며 중세 스콜라철학을 탐구하였다. 또한 명목론적 신학(名目論的神學)과 둔스 스코투스(Duns Scotus), 윌리엄 옥캄(William Occam), 가브리엘 비엘(Gabriel Biel)의 저서에서 그의 지적 영역(知的領域)을 확장하여 나갔다.<sup>47)</sup>

그가 몽태그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동안 독일 남부지방에서 사회혁명적(社會革命的) 성격을 띤 종교운동이 일어나서 1525년에는 12개 조 선언을 발표하였고, 마침내 농민폭동으로 발전하고 말았다.

칼빈이 오르레앙(Orleans) 대학에 가서 법률학을 공부하게 되었는데<sup>48)</sup> 그곳에서 당시 인문주의의 거장들을 만났으며, 볼마르(Wolmar)의 영향을 받았다.

1532년 4월 4일, 파리에서 그의 첫 작품인 <세베카의 부동론 주석>을 출간하였다.<sup>49)</sup> 칼빈은 이때까지 성경의 권위로 돌아가지 아니하였고, 인문주의적 입장을 고수하였다.

### 3. 칼빈의 회심

칼빈의 생애를 연구함에 있어서 하나의 난관은 그의 회심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은 점이다. 그는 스스로를 숨기고, 하나님의 역사만 강조하였기 때문에 그의 회심을 연구하기에 어려움이 있다.<sup>50)</sup>

칼빈이 인문주의와 결별하고 성경적 신앙으로 돌아선 시기가 언제인가에 대한 논란이 많다. 그러나 칼빈 자신이 명확하지 않지만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1557년에 나온 <서편주석>의 서문인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내가 깊은 수련에서 쉽게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교황의 미신성(迷信)에 어리석게 빠져 있을 때 갑작스런 회심(sudden conversion)으로 하나님

47) 김남식, *op. cit.*, pp. 103-4.

48) 그가 아버지의 권고대로 오르레앙으로 가서 법률학을 공부하였는데, 아버지의 제안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9) 이 책은 야심적인 인문주의자의 정치적 윤리사상(政治的倫理思想)이다. 이 논문으로 인문주의자로서의 칼빈의 모습을 찾아 보았다. cf. McNeill, *op. cit.*, p. 104.

50) *Ibid.*, p. 107.

님께서 나의 마음을 양순하게 굴복시켰다.<sup>51)</sup>

칼빈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목동(牧童) 다윗을 왕으로 세웠듯이 자신을 닮은데에서부터 거룩한 복음의 사자(使者)로 만드셨다고 하였다.

그의 회심이 언제였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서 산출 근거가 다르다. 칼빈의 회심에 대하여는 성경에 대한 불꽃이 타오르는 그 순간이 <갑작스런 전환>이라는 칼빈 자신의 말을 증명할 수 밖에 없으며<sup>52)</sup> 어떤 학자들은 부처(Bucer)에게 보낸 편지를 근거로하여 1532년 9월로 보지만 1534년으로 보는 것이 옳으리라고 본다.<sup>53)</sup>

칼빈은 이러한 과정에서 루터의 저서들을 접하게 되었다. 그의 견해는 교황과의 결별이기도 하였다. 그가 교황과 언제 결별하였느냐 하는 시기 문제가 제기된다.

1533년 니콜라스 쿵(Nicholas Cop)의 파리대학교 총장 취임 연설문의 초안자가 칼빈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 연설문은 성경적이고 복음적이며 반(反) 숭본느적이었다. 반교황적(反敎皇的)인 것은 없고 공식적 인사말의 서문과 결론에서 오히려 성모 마리아를 포함시키고 있다.

칼빈이 이 연설문을 초안한 것은 쿵과의 인간관계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연설문으로 인하여 칼빈과 쿵은 추적당하여야 했다.<sup>54)</sup>

칼빈은 1534년 5월 4일에 노용에서 성직자에게 주어지는 연금을 포기하였으며 이것은 그의 회심이 행동으로 나타낸 일이기도 하므로 그의 회심 연대를 추정하는데 있어서 좋은 자료가 된다.<sup>55)</sup>

### ◎ 기독교 강요의 집필

칼빈의 대표작인 <기독교 강요>(The Institutes of Christian

51) T.H.L. Parker, *John Calvin: A Biography* (London: 1975), pp. 31-32.

52) McNeill, *op. cit.*, p. 103.

53) *Ibid.*, p. 109. 베자(Beza)의 칼빈 전기에 의하면 칼빈이 19세 때에 회심하였다고 하나 신빙성이 희박하다. 그러나하면 베자(1519-1605)가 9세 때의 일을 35년 후에 회상하여 썼기 때문이다.

54) *Ibid.*, p. 112.

55) *Ibid.*, p. 115.

Religion)는 칼빈 신학의 집대성이며, 인류 역사에 깊은 영향을 준 책이다.<sup>56)</sup>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저술하므로 그의 신학적 위치는 확고하게 되었고, 기독교인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쳤다.<sup>57)</sup>

칼빈은 자기가 <기독교 강요>를 쓴 이유를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sup>58)</sup>

첫째로, 주님 보시기에 가장 귀중하게 순교당한 형제들의 당치도 않은 모욕을 변호하기 위함과 둘째로는 고통을 같이 하는 많은 가련한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염려와 걱정이 외국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가 이 책의 집필을 언제 시작하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 책이 처음 간행되었을 때, 저자의 이름을 말티아누스 루키니우스(Martianus Lucianus)라고 하였다.<sup>59)</sup>

이 책의 서문 서두에 <신학도를 위한 지침>으로 또는 <하나님의 무한한 교리의 본질>을 위하여 그가 심혈(心血)을 기울인 것이 나타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로마교회의 성경적 오류가 신교도들을 박해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변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1541년에는 프랑스어판을, 1561년에는 영어판을 출판하였고, 제 2판, 3판, 4판 등에서 내용을 보충하여 고백적(告白的)인 데서 입문서(入門書)의 경향을 띠게 되었다. 즉 박해받는 자들을 위한 하나의 변증적 고백 辨證的告白에서 종교적 탐문자(宗教的探問者)들을 위하

56) 기독교 강요의 역사, 저작 목적, 사상적 배경에 대해서는 申爾漢, 基督教綱要: 歷史, 著作目的, 思想的背景 (I), (II), (III), 神學指南, 177-9號, 1977 여름, 가을, 겨울號를 참조하라.

57)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1535년 8월 23일 이전에 완성하였다고 보는데 그 날짜에 프란시스 왕에게 증명되었다. 이 책은 1536년 3월의 바벨의 토마스 플레터(Thomas Platter) 출판사에서 라틴어로 간행되었다.

58) C.H. Irwin, *John Calvin* (London: 1909), p. 26.

59) 이렇게 가명을 사용한 것은 박해가 무서워서라 아니라 선전과 공판을 피하기 위함이며, 방해없이 읽고 쓰고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후에 저자의 이름을 Calvinus로 하였고, 1539년 스트라스부르크에서는 Wendelin Ribet이라는 개척자의 이름으로 프랑스에서는 Aicinius로도 하였다.



여 수정과 증보를 거듭하여 거의 완벽한 것으로 만들었다.<sup>60)</sup>

일반 대중에게도 성공적인 과목으로 인식케 된 본서는 프랑스 문학의 크게 두가지 분야에서 공헌하였다. 첫째로는, 이와같이 정교하고 심각한 작품이 언어적(言語的)으로나 사상적으로 이제까지 나타난 적이 없었다는 점이며, 둘째로는 문학의 특수성이다. 초판이 라틴어로 간행된 것이라든지, 언어 구사의 있어서 천재적 능력을 나타낸 점과 명백하고 고상한 문체(文體), 웅변적이고 경쾌한 음악적 리듬, 예절바른 신사와 같은 문장 그리고 때때로 어휘의 선택 등이 문학사적 가치(文學史的價値)를 가지고 있다.<sup>61)</sup>

<기독교 강요>는 칼빈의 학자적 위치를 공고히 하였고, 개혁신학(改革神學)의 방향을 정립시킨 역사적 작품이라 하였다.

#### 2) 제네바의 改革運動

화렐(Farel)의 강권에 의하여 제네바의 개혁운동에 참여하게 된 칼빈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敎師)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자기의 직책에 충실하였다.<sup>62)</sup>

칼빈은 처음부터 존경을 받은 교사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였다. 무명(無名)의 교사로서 주어질 임무에 충실하였다.<sup>63)</sup> 그러나 차차 그의 두각이 나타나게 되고 개혁자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해갔다.

칼빈은 신앙고백(信仰告白)을 1536년에 작성하고, 교회규약(敎會規約)과 교리문답서를 1537년에 작성하여 교회의 법적 질서(法的秩序)를 확립하며, 교인들의 훈련에 전력하였다.<sup>64)</sup>

제네바에서의 개혁운동은 처음부터 전폭적 지지를 받은 것이 아니다. 그는 반대자들에 의하여 제네바에서 축출되는 불운을 겪기도 하였다. 칼빈은 여러 곳을 유랑하였고, 스트라스버그(Strasburg)에서

60) Irwin, *op. cit.*, pp. 26-27; McNeill *op. cit.*, p. 124.

61) *Ibid.*

62) 김 남익, *op. cit.*, pp. 114f. 칼빈의 처음 맡은 직책은 <신성한 서신의 교수>(Professor of Sacred Letter)였다.

63) 1536년 9월 5일의 제네바 시의회 기록에 보면 화렐의 대패치는 존대하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칼빈에 대해서는 <저 프랑스인>(ille Gallus)이라고 기록하면서 이름조차 쓰지 않았다.

64) 칼빈의 교인 훈련의 규칙서는 본 논문의 III에서 다루려고 한다.

3년간 머물면서 개혁운동을 전개하였다.

칼빈은 스트라스버그에서 교회일과 학교일을 병행하였고, 동역자요 선배인 부처(Bucer)가 항상 곁에서 도와주며 그의 활동(活動)을 격려했다.<sup>65)</sup>

그는 교회에서 성경을 주석하고, 교회의 각종 규범(規範)을 정리하는 등 교회를 체제화하는데 그의 정성을 쏟았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스트라스버그를 개혁운동의 중심지가 되게 하였다.

칼빈이 제네바를 떠난 1년후부터 제네바에서는 그를 다시 초청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일기 시작하였고, 계속된 제네바 시의회는 초청에 따라 칼빈은 1541년 9월 13일에 다시 제네바로 돌아갔다.<sup>66)</sup>

칼빈의 제2 제네바 시대는 온갖 역경을 극복하면서 개혁운동을 전개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가 계획하고 추진하였던 개혁운동(改革運動)을 정리하고 새로운 운동으로 뿌리를 내리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는 자신이 제네바에서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스트라스버그의 경험이 그로 하여금 제네바의 개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게 하였으며, 그 자신이 자기의 전부를 개혁운동에 쏟게 되었다.

그가 제안한 제네바 교회 예식서(敎會禮式書)는 1541년 11월 20일에 무수정으로 총회에서 채택되었고, 제네바 교회의 원리, 나아가서 장로교회의 원리를 제시하였다.<sup>67)</sup>

그는 설교와 성경강해, 신학강의 그리고 집권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었고,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원리를 확립시키는데 노력하였으며, 그의 노력에 의한 제네바의 신정정치(神政政治)는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변화의 꽃송이였다.

칼빈은 1564년 5월 2일, 그의 선배요 동역자며 친구인 화렐에게

65) McNeill, *op. cit.*, p. 145.

66) Irwin, *op. cit.*, p. 106; McNeill, *op. cit.*, p. 158.

67) 제네바 교회의 교회 예식서는 교회헌장(敎會憲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모든 개혁교회들이 이 교회 예식서에 모든 정제를 수립하기 때문이다. 이 헌서는 성경과 초대교회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적용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음과 같은 마지막 편지를 보내었다.<sup>68)</sup>

「가장 좋고 진실했던 친구여! 안녕히 계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할 일을 뒤에 두고 떠나겠어요. 바라건대 전할 하였던 우리의 우정을 회고하면서 사세요. 나를 위해서 너무 마음을 괴롭히지 마세요. 현재 나의 숨소리는 너무 거칠어요. 한 순간 한 순간 숨이 끊어질 것만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스도!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그에게 있어서는 삶이나 죽음이나 유익한 것이지요. 그러길 부디 형이여 안녕히 계십시오.」

이 편지를 받은 화일은 80의 고령이었지만 칼빈을 문안하였다. 칼빈은 1531년 5월 27일 오후 8시에 하나님께 불리웠으니 향년 54세 4개월이었다. 그 다음날인 28일 오후 2시에 재네바시 공동 묘지에 안장되었다.<sup>69)</sup>

칼빈은 그의 장례식을 매우 검소하게 거행하도록 유언하였다. 또한 그의 묘에는 J.C.라는 표시를 하트로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보다 인간 칼빈을 더 귀하게 생각하려는 유혹을 사전에 배제하는 데 노력하였다.

하나님의 사람 칼빈은 16세기 기독교 역사를 관류하는 개혁자들의 신앙을 집대성(集大成)하였고, 말씀의 원리(原理) 속에서 구체적인 생활 내용을 정립하는데 그의 생애를 다 하였다.

우리가 칼빈의 생애를 평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하여야 하는 것은 그가 지켜온 삶의 원리 문제이다.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았고, 성경이 제시하는 생활 철학(生活哲學)을 형성하는 데 노력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았으며 기독교의 진리 속에 깊이 몰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기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간 칼빈의 생애는 '하나님 앞에서' (CORAM DEO) 산 하나님의 사람의 생애이며,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의 흔적이라고 하겠다. (계속)

68) 김 남식, *op. cit.*, p. 171.

69) 정 호근, 칼빈의 삶과 사상(서울: 새중문화사, 1980), p. 401.

### 宗 教 法 判 例 集

韓國宗敎法學會 編

育法社 發行

1982, 456頁, 3리운판

값 9500원

李 劍 國 評

(추천의장사·延世大敎授·法學)

韓國宗敎法學會가 編纂한 宗敎法判例集이 지난해 말 育法社에 의하여 出版되었다.

宗敎活動은 社會活動으로서의 側面을 強하게 지닌 것이기에 데로는 宗敎團體內部에 또는 宗敎團體와 局外者 間에 마찰이나 충돌이 생길 수 있고 어떠한 宗敎活動이 社會秩序에 反하는 것으로 나타난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諸 變遷가 그 進路如何에 따라서는 法律問題로서 各種 裁判의 對象으로 될 수 있음은 勿論이다. 또한 宗敎人이나 宗敎團體 自身은 紛爭이 있는 問題를 法以前의 段階인 信仰이나 道德의 次元에서 解決하려는 경우 조차도 만일 다른 關係者가 이를 法廷으로 가져 올 경우 부득이 할 계 裁判에 關聯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基督敎를 비롯한 諸 宗敎의 敎條와

活動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權利的으로 宗敎와 關聯하는 法律問題도 많이 發生되고 있는 요즈음 宗敎法判例集의 發行되었다는 것은 매우 時期適切한 것이라고 보며 이 關係를 다루는 法曹人이나 學者에게는 勿論 많은 宗敎法系者들에게도 큰 關心의 對象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나온 宗敎法判例集은 主로 宗敎에 關聯된 우리나라 大法院, 法院을 그 中心으로 삼고 部分的으로는 日 統治下의 朝鮮高等法院判決을 參考하면서 이들을 整理할 工夫를 간단히 敍述의 形式로 다음과 같다.

第1章에서는 董錫康 敎授(서울大 法大)가 韓國宗敎法의 歷史的 發展과는 題目下의 우리나라에서 宗敎의 自由가 如何히 保障된 否를 考察한 結果를 以해서 宗敎法의 歷史的 事實과 關係를 論하여 말하며 宗敎法의 關係를